

##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출발점 - 1492, 열등한 원주민 대 우월한 유럽인

- 식민지시대의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 사료를 중심으로 -\*

송영복(경희대학교)\*\*

- I. 들어가는 글
- II.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시대의 사회계층구조
- III. 나가는 글 - 식민지시대 사회계층구조의 현재적 의미

### I. 들어가는 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한 시발점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상징적으로 가정한다면 - 1492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의 역사는 “고대문명”이라는 묘한 느낌을 주는 - 신비해서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 말로 대치된다. 그리고 “라틴”이라는 단어와 “아메리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에스빠냐사람들의 전혀 새롭지 않은 대륙에 대한 침략에서부터 시작된다. 결국 이 말은 라틴아메리카라는 말과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시작이 1492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를 역사적인 과정으로 고찰해 본다면 그 시점을 149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의 사건이 오늘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이 이 연구의 배경적인 시발점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AS1003).

\*\* Young-Bok Song(Kyo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songyb@khu.ac.kr), “La apertura de la estructura social latinoamericana - 1492. Indios inferiores. Europeos superiores.”

이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출발점은 1492년 이후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을 먼저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렇게 설정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구조가 오늘날까지 깊은 개연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작된다. 이 논문은 1492년부터 시작된 사회구조가 식민지시대의 공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사회구조 틀의 기본 맥락으로 연결되어 자리 잡았는지를 관찰하고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 발전된 사회구조가 독립이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외형적인 틀만을 바꾼 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보겠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맥락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뿌리 깊은 문제점들은 오늘날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단적인 예로 멕시코의 사빠따 농민운동만 보더라도 그 원인을 유럽의 아메리카대륙 정복과 그 이후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착취와 부당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Avila 2001, 37, 2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92년 직후의 라틴아메리카에 살았던 지배계층의 생각을 통해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 성립의 근간을 이루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배계층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지배 엘리트 계층이외에는 사회구조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은 기존의 역사, 사회, 정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중요한 논의로 깊이 있게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방법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둔다. 즉 위에서 밝힌 논지를 사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역사학적인 접근으로 사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인 차후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그 주 목적과 의의가 있다.

1492년 이후 서양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이곳에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침략을 하여 무력으로 성공한 에스빠냐사람들은 상류사회에 그리고 침략을 당해 패배한 원주민들은 하류사회에 철저하게 고착되었고 그러한 전통이 식민지시대와 근대를 거쳐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최초 관계설정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복의 원인과 과정은 식민지사회의 원주민들에 대한 결론을 - 검증 절차와는 상관없이 -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 “에스빠냐의 침략자들은 우월하고 원주민들은 열등하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그럴듯하여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한다는 방침도 이미 확정적인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의 역량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스빠냐사람들은 원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자. 모든 면에서 원주민들은 에스빠냐사람들과 비교하여 절대, 상대적인 열등함과 인간으로서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몇 가지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면에서 이들은 본성적으로 악하거나, 동물에 가깝거나 에스빠냐사람보다 모자라게 탄생한 인간들이다. 사회,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들의 열등함은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이권으로 하여 탄생한 새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미 에스빠냐사람들은 아메리카대륙 침략이전부터 열등한 인간이라는 사회적인 차별에 근거한 노예제도와 철저한 계급사회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침략과 더불어 더욱 확대 재생산되어 극대화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러한 신분제도가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침략이후 적용, 고정화되었는지 관찰해보자.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아메리카대륙의 사회신분제도 고착을 정당화하는, 다시 말해 유럽인들은 우등하고 원주민들은 열등하다는 틀이 어떤 맥락에서 설정되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사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 종교적인 면 등으로 구분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도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즉 식민지시대의 중심세력들이 위에는 요소들로 나누어서 원주민들이 열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류가 딱히 맞아떨어져 명확한 차별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는 방편이라는 점을 밝힌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당시의 사료가 연구의 중심에 놓인다. “사료는 증언이다”라고 한다면 증언을 통해서 즉 사료를 통해서 에스빠냐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정복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 강조, 합리화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장 생생하게 최초 관계형성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정복시기와 그 직후인 16세기에 만들어진 사료들을 통해서 에스빠냐사람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지역적으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포함하여 남미 페루의 사료들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료들의 저자들은 상류계층을 형성하는 엘리트들인데 정복에 직접 참여하였던 꼬르메스나 디아스 델 가스펠요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벨베다, 사하군과 같은 가톨릭의 사제들도 있으며 로베스 데 고마라와 같이 아메리카대륙을 관장하였던 고급행정관료로 현지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에스빠냐사람들도 있다. 또한 구아만 뽀마와 같은 원주민 엘리트와 에스빠냐사람 사이의 혼혈인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서 당대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 II.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시대의 사회계층구조

정복직후 아메리카대륙의 사회계층구조는 정복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쟁에서의 공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물론 에스빠냐 정부에서는 정복자들의 공훈으로 생긴 기득권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현지의 상황은 정복자들과 이들의 엔꼬미엔다가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복한 땅을 보상으로

받은 엔코멘데로가 사회계층의 가장 상부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에스빠냐에서 파견된 소위 빠닌술라레스(Peninsulares)라고 불리는 에스빠냐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엔코멘데로들을 관리하며 외형적으로는 그들의 상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엔코멘데로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가장 중심이 되며 모든 부와 권력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엔코미엔다의 경제는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다. 즉 아주 적은 수의 엔코미엔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절대다수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하층 농민들이 되는 것이다.

에스빠냐사람들 중에 정복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계층 서열에서 엔코멘데로 다음으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은 큰 엔코미엔다를 받지 못하고 적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들은 엔코멘데로와 같이 대농장에서 살며 경제적인 소득원을 대농장에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주로 행정관리, 건축가 등으로 활약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엔코미엔다를 받지 못한 에스빠냐사람들의 수가 엔코미엔다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전체 에스빠냐사람 중에 엔코미엔다를 받은 수는 30%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상급관리나 무역종사자 등 좀더 나은 조건에서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정, 목수, 하급관리, 시종장, 약사 등의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에스빠냐사람들 간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을 형성하였으나 어찌되었거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환경은 원주민들보다는 좋았다. 원주민들은 사회의 바닥층을 형성하며 경제의 1차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모든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에스빠냐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거나 상위계층도 존재하였다. 이들에게는 말을 타거나 에스빠냐사람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등의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특권을 가진 원주민들은 가장먼저 에스빠냐사람들과 동화하는 집단이 되어간다. 반면 보수적인 원주민

엘리트들은 자체 원주민 부락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런 원주민 지방호족 중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엔꼬멘테로 등의 호의를 끌어내 정복이후의 사회계층구조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결국 원주민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상부로 계층 상승을 하게 되는 수는 극히 적었다. 극단적인 절대 다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엔꼬멘테로의 경제적인 부와 에스빠냐 정부의 세금을 담당하는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가치를 부여받았다. 초기 정복이후에 형성된 사회계층구조는 16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대물림에 의하여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진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하여 엔꼬멘테로의 절대적인 권력이 다소 견제를 받고 에스빠냐 정부에서 파견된 소위 빠닌술라레스(Penínsulares)라고 불리는 에스빠냐 출생의 관리들이 정치적인 권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지방경제의 중요부분은 여전히 엔꼬멘테로가 장악을 하고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에스빠냐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오히려 엔꼬멘테로와 빠닌술라레스에게 이중의 착취를 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위의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계층구조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에스빠냐 정부와 사회는 하층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사회신분제도를 전통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원주민들에게는 희생과 착취라는 기득권에 반한 반대급부를 확대시키게 된다. 에스빠냐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는 철저히 에스빠냐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승을 그 중요한 동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에스빠냐에서 보여주었던 사회계층구조를 더욱 심화 발전, 즉 사회계층구조간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식민지시대의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점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의 사회구조를 집대성한 실비오 사발라의 의견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Zavala 1981, 1-105). 에

스빠냐의 왕실에 의하여 원주민들의 노예화를 포함한 사회적인 불평 등의 시작이 식민지 초기에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꾸에 까노바스 역시 식민지시대의 사회구성의 기초가 원주민들 정복의 결과로서 고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ue Cánovas 1983, 45).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 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롭게 탄생한 기득권은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합리적인 근거와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사회계층구조 고착화의 이론적인 배경이 된다. 전형적인 식민지역사과정을 통해 생산된 사회계층구조는 필연적으로 원주민들의 열등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열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다는 논리가 필요하였다. 종교, 사상, 생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련의 원주민 열등화 작업에 동원되었다. 노예제도나 죽음에 이르는 노동 등의 어떠한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사악하고 무식하고 가치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 만들기 작업은 상류계층이 누리는 부와 권력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극단적이었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점들을 사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자.

## II.1. 생태적인 면에서 원주민들은 열등하고 에스빠냐사람들은 우월하다

제일 먼저 에스빠냐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주민과 유럽인의 신분적인 엄격한 수직관계의 시작점을 가르시아 뵤라요가 쉘베베다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원시의 열등함과 문명의 우월함으로 대비된다. 이성적, 인간적인 강함 등의 자연적인 요소들은 에스빠냐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요소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루까노, 실리오 이팔리꼬, 세네까, 아베로스, 알폰소 엘 사비오 등과 같은 옛 선인들

의 이름을 들추며 그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sup>1)</sup> 즉 에스빠냐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우월한 집단이었으며 그들의 후손인 당대의 에스빠냐인 역시 인종적으로 우월한 집단인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와는 대조되는 열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에스빠냐사람들과 원주민들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합리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원주민=나쁜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대 에스빠냐사람=좋은 사람, 옳은 사람

같은 맥락에서 역시 자연적(por ley natural)이라는 이름을 빌어 에스빠냐사람들은 좋은 사람(hombre de bien, bueno)이요 원주민들은 나쁜 사람(malo)이라고 대비시키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에스빠냐사람들은 옳은 사람(justo)이고 원주민들은 옳지 않은 사람(injusto)이다.<sup>2)</sup> 생태적인 면에서의,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의 차이, 열등과 우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주민=바보같은 사람 대 에스빠냐사람=똑똑한 사람

더욱 나은(mejor) 혹은 똑똑한(inteligente)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 없다. 에스빠냐사람들의 우수성은 원주민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똑똑한 혹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sup>3)</sup>

1) Para ser rectamente aplicada esta doctrina se exigen, pues, dos condiciones: el estado de barbarie de los indios y la superioridad de los españoles. Ambas son extensamente desarrolladas por Sepúlveda. La raza española ha producido culturalmente figuras tan excelsas como Lucano, Silio Itálico, los Sénecas, Averroes, Alfonso el Sabio, etc.; en "fortaleza y esfuerzo bélico las legiones españolas han dado en todo tiempo ejemplos que exceden a la credibilidad humana"(Sepúlveda 1987, 29)

2) Esta luz de la recta razón, es lo que se entiende por ley natural; ésta es la que declara, en la conciencia de los hombres de bien, lo que es bueno y justo lo que es malo é injusto...(Sepúlveda 1987, 67)

3) ...esto no sólo en los cristianos, sino en todos aquellos que no han corrompido la recta naturaleza con malas costumbres, y tanto más cuanto cada uno es mejor y más inteligente(Sepúlveda 1987, 67).



원주민=소심한, 겁 많은 사람 대 에스빠냐사람=용감한 사람  
끄리스토포발 콜론의 항해록에도 원주민들의 생태적인 소심함과 겁 많음을 강조한 글이 보인다.

이 부근 곳곳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모두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었다(제독은 두 국왕에게, 그들은 숫자가 1만 명쯤 되어도 이쪽 10명을 보고 도망칠 정도로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또 무기라고 해봤자 불에 그을린 다음 뾰족하게 깎은 작은 막대기를 끝에 매단 나무 투창밖에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래서 제독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콜럼버스 항해록, 163쪽).

원주민=동물 대 에스빠냐사람=인간

자연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에스빠냐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나쁘고 바보 같으며 소심한데다 겁까지 많다. 이러한 생각의 종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에스빠냐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간 혹은 더욱 발전되어 인간과 동물의 중간이거나 아니면 아예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으로 원주민들은 동물이요 에스빠냐인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식민지 초기의 에스빠냐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분위기였을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원문에서 나타나는 “노예(siervo)”에서 “야만인(bárbaro)”과 “무식한 놈(inculto)”으로 이어지는 원주민들에 대한 평가는 급기야는 “인간이 아닌(inhumano)”을 거쳐(Sepúlveda 1987, 153) 쉘베다의 원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하는 동물(animal que habla)”에 이르게 된다. 남미 페루의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 역시 원주민들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동물에 비견하고 있다. 원주민 세계의 신들이나 인신공양의 야만성과 비교하면서 도시의 구조나 가옥의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 아니라 마치 야수들의 우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sup>4)</sup>

4) En la manera de sus habitaciones y pueblos tenían aquellos gentiles la misma barbaridad que en sus dioses y sacrificios. Los más políticos tenían sus pueblos poblados sin plaza

## II.2. 사회적인 면에서 원주민들은 열등하고 에스빠냐사람들은 우월하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에스빠냐사람들과 원주민들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당대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쎄뵈베다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와 같이 인간에게는 분명한 복종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기반하에 원주민들은 사회적인 상하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에스빠냐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은 상위계층을, 그리고 원주민들은 당연히 아들과 같은 하위에 존재한다고 믿었다(Sepúlveda 1987, 81-83).

플론은 그의 항해록에서 원주민들은 영리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리함은 사회적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 인간으로서의 영리함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한 생태적인 면에서의 열등함을 전제로, 하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리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영리하고 훌륭한 하인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금세 되풀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그들이 아주 쉽사리 크리스티교도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아무 종교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콜롬버스 항해록, 83쪽).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면에서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빠냐사람들이 이곳 원주민들을 상하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교화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사회적인 상하구조는 원주민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베르날 디아스 델 까스텔요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cuántas querían) 여자를 취하는 원주민들의 악습(vicios y maldades)을 지적하면서 신성한 신앙을 전해주고 올바른 삶(buena policía de vivir)을 갖도록 우월한 지위에서

---

ni orden de calles ni de casas, sino como un recogedeto de bestias(Garcilaso de la Vega 1984, 24).

원주민들을 에스빠냐사람들이 교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Díaz del Castillo 1997, 875-876). 즉 원주민과 에스빠냐사람들 간의 신분적인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 II.3. 정치적인 면에서 원주민들은 열등하고 에스빠냐사람들은 우월하다

원주민들은 생태적인 열등함과 사회적인 열등함 등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에스빠냐인들의 생각이었다. 당연히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스빠냐사람들이다. 로페스 메델의 사료는 판사와 사법행정관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를 원주민들을 통치하여 정의를 확립하는데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López Medel 1990, 285). 정치적인 면에서 에스빠냐사람들과 원주민들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생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보같은 인간들을 엘리트 집단이 지배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원주민들은 지배를 당하는 자, 에스빠냐사람들은 지배를 하는 자 라는 정치적인 기본원칙이 변하지 않고 정복기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고정 및 강화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4. 종교적인 면에서 원주민들은 열등하고 에스빠냐사람들은 우월하다

종교적인 면에서의 아메리카대륙원주민들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보다 더욱 극명하다. 결국 같은 이야기겠지만 다른 표현 방식을 빌어 말한다면 종교적으로도 이교도인 원주민들은 올바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에스빠냐사람들과 비교할 가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즉 원주민들은 이교도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라는 말이 가능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도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

은 이들이 이교도이며 열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특징상 이러한 종교적인 열등성은 다양한 면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면에서 원주민들의 열등성을 원천적으로 합리화하는 근거로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진정한 신(Verdadero Dios)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들이다. 당연히 진정한 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에스빠냐사람들이다. 원주민들이 믿었던 것은 악마(Demonio)요, 에스빠냐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진정한 신이다. 사료에서 원주민들의 종교를 거짓된 종교(falsa religión)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6세기 사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에스빠냐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숭배(idólatras)를 타파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신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에스빠냐의 진정한 종교를 거역하는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죽이는 것까지도 이러한 점에서 정당화되었다(López Medel 1990, 229).

“원주민들의 종교는 거짓이다”는 명제하에서 보면 이들의 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사나 의식은 거짓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사제들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는 점을 사료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López Medel 1990, 230).

원주민들이 믿었던 신들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서 그들의 종교는 이단적인 것이고 따라서 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 역시 빠질 수 없는 강조점이다. 인간집단의 정신적인 가치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신이 가장 비합리적이라는 열등화가 이들의 신에 대한 묘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이찌로뽀쯔플리라고 하는 메시까의 주된 신은 인간의 고기를 먹는데 그가 먹고 남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묘사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시체에 온통 구멍이 나 있으며 잔인한 우이찌로뽀쯔플리 신이 심장을 모두 먹어버려 시체에 심장이 없다<sup>5)</sup>는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원주민 종교의 이

5) Y amanescido otro día, muy de mañana, se bieron los Çentzonapas mexicanos todos los

단성과 원주민들의 잔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6세기의 사료들은 메시카 민족의 기원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즈뜰란이라고 하는 상상의 장소에서 유랑을 시작하여 새로운 땅, 평화와 안정의 땅인 메노츠티뜰란에 도착하기까지 이들 민족을 지켜주고 이끄는 우이쩔로쁘즈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신에 대하여 백성을 파괴(destruidor de pueblos)하고 인간을 죽이는 자(matador de gentes)라고 표현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 특히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더욱더 - 원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가치 재고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해주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도 전제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하군신부는 원주민지도층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건립하여 이들의 교화에 힘쓰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식민지의 가톨릭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원주민 문화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을 집필하였는데 그의 시각은 원주민들의 신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비인간적인 잔인성(crueldad tan inhumano), 야만성(bestial), 마귀가 씌운(endiablada), 눈물나는(mueva a lágrimas), 공포(horror), 경악(espanto), 유감(lamentable), 천박 혹은 저급한(bajeza), 치욕(oprobio) 등의 단어들을 열거한다.<sup>7)</sup> 또한 어떠한 위협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지시에 따라 인간들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는(por sugestión del demonio, maten y coman a sus hijos, sin pensar que en ello hacían ofensa ninguna, Sahagún 1989, 100) 행위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남미 잉카의 경우 식인의 전통에 대한 학술적인 보고가 상대적으

cuerpos aguxerados, que no tenían ninguno dellos corazón; otros los comió Huitzilopochtli, <que> se tornó gran brujo el Huitzilopochtli, adonde se atemorizaron los mexicanos(Alvarado Tezozomoc 2001, 60).

6) Este dios llamado Huizilopochili fue otro Hércules, el cual fue robustísimo, de grandes fuerzas y muy belicoso, gran destruidor de pueblos y matador de gentes(Sahagún 1989, 31).

7) No creo que haya corazón tan duro que oyendo una crueldad tan inhumana, y más que bestial y endiablada, como la que arriba queda puesta, no se enterezca y mueva a lágrimas y horror y espanto; y ciertamente es cosa lamentable y horrible ver que nuestra humana naturaleza haya venido a tanta bajeza y oprobio que los padres,(Sahagún 1989, 100)

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의 사료에 인간의 고기를 좋아한다(amicismos de carne humana)던가 인간의 피를 즐겨마셨다는 점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상처부위로 피를 빨다(le bebían la sangre por la herida que le habían dado), 신체를 잘라가면서 나오는 피를 빨다(y lo mismo hacían cuando lo iban descuartizando, que chupaban la sangre)는 근거가 미약한 말로서 이들의 잔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손을 핏는다(y se lamían las manos porque no se perdiese gota de ella.), 인육을 파는 인육점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상점에서 인체의 다양한 부위를 남김없이 팔았다는 점은 과장을 통해 경악을 불러일으키게 한다.<sup>8)</sup>

결국 이렇게 악마적인 기운에 의하여 지배되는 잘못된 종교, 거짓된 종교는 바로잡아 고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스빠냐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다(Carrillo 1992, 101). 그리고 사회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열등과 우등의 종교적인 관계가 진정한 종교, 악마에 대한 믿음이라는 면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식민지 지배의 바탕에 흐르는 사상적인 근간이 된다.

### III. 나가는 말

에스빠냐와 유럽사회는 일찍부터 사회계층의 뚜렷한 분화를 보여왔다. 상류 귀족계급에서 하층 노예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각 계층들은 세습적인 신분제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에스빠냐의

8) En muchas provincias fueron amicismos de carne humana y tan golosos que antes que cabase de morir el indio que mataban le bebían la sangre por la herida que le habían dado, y lo mismo hacían cuando lo iban descuartizando, que chupaban la sangre y se lamían las manos porque no se perdiese gota de ella. Tuvieron carnicerías públicas de carne humana; de las tripas hacían morcillas y longanizas, hinchándolas de carne por no perderlas(Garcilaso de la Vega 1984, 25).

경우 아랍사람들과의 오랜 전쟁을 통하여 각 인종에 따른 신분의 격차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눈뜨고 있었다. 따라서 아메리카대륙의 정복과 더불어 원주민과 에스빠냐사람과의 차별화,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에 근거를 둔 엄격한 사회 신분제도의 적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 제도의 적용은 이전의 어떤 유럽사회가 경험하였던 신분제도와 비교하여도 훨씬 더 극명하여 각 신분간의 격차가 깊은 제도였다. 모든 상류계급에는 에스빠냐 출신의 사람들로 메워졌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엔꼬멘테로와 같은 기독교를 가진 에스빠냐 출신의 백인들이 상류계층을 장악하게 된다. 다른 에스빠냐사람들 중에는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주민들과 비교한다면 높은 신분을 유지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상류 에스빠냐 엘리트 그룹과 하부 원주민들 간의 격차는 인종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제도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잔인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질까지도 구분하고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또마스 오르띠스와 다른 프란시스꼬수도회의 신부들이 원주민들의 노예화를 정당화 하기위하여 인디아자문위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적고 있는 로베스 메델의 기록을 보면 평소의 그의 생각이 세뿔베다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마치 종합정리서와 같은 원주민들의 열등함을 잘 요약한 점이 다채롭다.

이 인디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종족들보다도 인간의 고기를 먹으며 계간(鷄姦)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발가벗고 다니고 사랑도 없으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마치 당나귀 같으며 우둔하고, 미친 사람이요 분별력조차도 없다; 죽거나 죽일 것도 없다; 자신의 이익이 안 되면 진실도 없다; 꾸준함도 없다, 조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저 새것만을 좋아한다; 술 취하는 것을 즐기는데, 여러 가지 풀, 과일, 뿌리, 알곡을 가지고 술을 만든다; 연기나 이상한 풀을 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나쁜 습관에 미쳐있다; 늙은이, 아버지, 자식들 간에 복종이나 예의도 없으며; 교리나 벌을 이해할 능력도 없다; 반역자들이요, 잔인하고, 복수를 좋아하여 용서를 모른다; 종교를 혐오하고, 게으름뱅이이고

도둑들이며 거짓말쟁이이다. 분별력이 없고 무기력하다; 신의나 질서도 없다, 부부들 간의 충직함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무당들이고 야바위꾼들이며 강신술사이다; 토끼처럼 겁이 많고 돼지처럼 더럽다; 여기 저기 널려있는 이나 거미나 살아있는 굼벵이를 먹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나 기술조차도 없다; 가르쳐준 [가톨릭]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까스떨야의 것이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신들의 세상에서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수영이 없는데 만일 수영이 나면 그것을 뽑아버린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비록 그들이 이웃이건 친척이건 간에 어떤 동정심도 가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거나 산에 데리고 가서 몇 조각의 빵과 물만을 남겨둔 채 죽게 만든다. 장성하면 할수록 더욱 더욱 나빠져서 열이나 열두살이 되면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덕목을 갖춘 듯이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포악한 동물처럼 되어간다; 결국 내가 확신하건데 신을 절대 믿지 않으며 부드러움이나 예의바름이 전혀 없는 악습과 야만성에만 빠져 있다(López de Gomara 1985, 304).<sup>9)</sup>

에스빠냐사람들의 아메리카 대륙정복과 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에 대한 절대, 상대적

9) Los hombres de Tierra Firme de Indias comen carne humana, y son sodomíticos más que ninguna otra generación. Ninguna justicia hay entre ellos, andan desnudos, no tienen amor ni vergüenza, son como asnos, abobados, alocados, insensatos; no tienen en nada matarse ni matar; no guardan verdad si no es en su provecho; son inconstantes, no saben qué cosa sea consejo; son ingratísimos y amigos de novedades; se precian de ser borrachos, pues tienen vinos de diversas hierbas, frutas, raíces y grano; se emborrachan también con humo y con ciertas hierbas que los saca de quicio; son bestiales en los vicios; ninguna obediencia ni cortesía tienen mozos a viejos ni hijos a padres; no son capaces de doctrina ni castigo; son traidores, crueles y vengativos, pues nunca perdonan; inimicísimos de religión, haraganes, ladrones, mentirosos, y de juicios bajos y apocados; no guardan fe ni orden, no se guardan lealtad maridos a mujeres ni mujeres a maridos; son hechiceros, agoreros, nigrománticos; son cobardes como liebres, sucios como puercos; comen piojos, arañas y gusanos crudos dondequiera que los encuentran; no tienen arte ni maña de hombres; cuando se olvidan de las cosas de la fe que aprendieron, dicen que aquellas cosas son para Castilla y no para ellos, y que no quieren mudar de costumbres ni de dioses; no tienen barbas, y si alguna les nace, se la arrancan; con los enfermos no usan piedad ninguna, y aunque sean vecinos y parientes los desamparan al tiempo de la muerte, o los llevan a los montes a morir con sendos trocitos de pan y agua. Cuanto más crecen se hacen peores; hasta los diez o doce años parece que han de salir con alguna crianza y virtud; pero de allí en adelante se vuelven como brutos animales; en fin, digo que nunca crió Dios tan cocida gente en vicios y bestialidades, sin mezcla de bondad o cortesía(López de Gomara 1985, 304).



인 우등과 열등의 관계는 공식,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 독립 이후의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외형적이고 공식적인 면에서 일부의 변화의 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원주민들의 권익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된다. 인구의 대다수가 원주민과 혼혈로 이루어져 있지만 백인들 사회구조의 상위지배현상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정복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럽인 우월화와 원주민 열등화의 선상에서 그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

식민지 초기의 사회적인 구조의 합리화는 정책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식민지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정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의 고정된 사회구조들로 확립된다. 또한 식민지시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근간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식민지기간이 끝나고 독립된 국가로의 전환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틀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하는가 혹은 계속해서 이어가느냐가 식민지시대 이후 근대 현대국가로 발전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회구조의 가장 중요한 논란이요 변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기존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전통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없는 일관성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차후 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러한 시대적인 축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로서 식민지시대의 사회구조이데올로기의 고착화 과정을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메리카독립이후 변화의 시도는 원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자리매김의 중요한 변혁의 계기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시각과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논의조차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에 관련한 첨예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이러한 점에

서 이 연구의 후속으로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세기의 격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원주민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치는 다시 한번 고통스런 항변을 한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후속연구로서 차후의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힌다.

### Abstract

La diferenciación, o mejor dicho, la profunda discriminación social de los españoles hacia los aborígenes del continente americano fue una base primordial en cuanto a la formación de la estructura social de América Latina en el tiempo colonial. Muchas obras de cronistas de aquel tiempo revelan claramente este tipo de idea. Entre ellas podemos contar las obras de Bernardino de Sahagún, Luis de Sepúlveda, Bernal Díaz del Castillo y Alvarado Tezozomoc, entre otros. De la misma manera, los cronistas del Perú, subrayando las de Guaman Poma y Garcilazo de la Vega, presentan la misma opinión, al igual que López de Gomara y López Medel. Según los criterios de dichas obras, los indios de este continente son inhumanos, malos, animales, tontos, injustos, bárbaros, incultos, cobardes, demonios, crueles, es decir, todo lo malo. En cambio los españoles son mejores, inteligentes, prudentes, buenos, justos, o sea, todo bueno. En esta circunstancia definitiva, aunque habían algunas pocas palabras en contra, se justificaba el dominio absoluto de los españoles sobre la sociedad autóctona. Y esta base no sirve sólo para los tiempos de la colonia, sino también a lo largo del proceso de la modernización hasta llegar al día de hoy. Esto significa que la ideología y filosofía del tiempo de la conquista acerca de la estructura social perdura sin cesar hasta el fondo social de nuestra era, sin haber sufrido un mínimo cambio.

Key Words: Latinoamérica, Indio, México, Estructura Social, Colonia /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멕시코, 사회구조, 식민지

논문투고일자: 2004. 12. 21

심사완료일자: 2004. 12. 27

심사완료일자: 2005. 02. 18

## 참고문헌

- 라스카사스 위음(2001), 『콜럼버스 항해록』, (박광순 옮김), 범우사
- Ávila Espinosa Felipe, Arturo(2001), *Los orígenes del zapatismo*, México: ECM, UNAM,
- Alvarado Tezozomoc, Hernando de(2001), *Crónica mexicana*, Madrid: Edición de Gonzalo Díaz Migoyo y Germán Vázquez Chamorro, DASTIN historia.
- Carrillo, Francisco(1992), *Cronistas indios y mestizos II Guaman Poma de Ayala*, Lima: Editorial Horizonte.
- Cue Cánovas, Agustín(1983), *Historia Social y Económica de México 1521-1854*, México: Trillas.
- Díaz del Castillo, Bernal(1997),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México: Alianza Editorial.
- Garcilaso de la Vega, El Inca(1984), *Comentarios reales*, México: Porrúa.
- Las Casas, Bartolomé de(1989),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México: Fontamara 2, Distribuciones Fontamara, S.A.
- López de Gómara, Francisco(1985),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España: Ediciones Orbis.
- López Medel, Tomás Berta Ares Queija(1990), *De los tres elementos Tratado sobre la Naturaleza y el Hombre del Nuevo Mundo*, Madrid: El libro de Bolsillo Alianza Editorial Madrid.
- Ottón de Mendizábal, Miguel y otros(1989), *Ensayos sobre las clases sociales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Nuestro Tiempo.
- Sahagún, FR. Bernardino de(1989),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Sepúlveda, Juan Ginés et al.(1987), *Tratado sobre las justas causas de la guerra contra los indios*,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ong, Young Bok(1995), *Esclavitud y servidumbre entre los mayas prehispánicos*, (Tesis de Maestría) UNAM, FFyL, México.

- \_\_\_\_\_ (1998), *La dinámica de la sociedad maya - La función del sistema de familia en la organización social maya del Posclásico*, (Tesis de Doctorado) UNAM, FFyL, México.
- Zavala Silvio(1981), *Los Esclavos Indios en Nueva España*, México: El Colegio Nacional.